

인간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고양파주대안교육협의회

팟캐스트: 공공상담소?

- 욕망: 공기, 습기, 균 같은 것. 언어메시지로 전달되는게 아니라 눈빛 표정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 어떻게 하면 부모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로 자라나게 할 것인가?
- 양육태도, 삶의 가치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었고, 앞으로도 전달될 것임.
- 내가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
 - 아이가 자발적으로 대안학교를 가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도 부모의 욕망.
 - 아무리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했지만, 이것 역시 일종의 욕망의 시작. 잘못된 것일 수 있다.
- 하자학교 교감을 한 적도 있음.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비판적인 입장.
 - 물론 공교육에 비해서는 낫다는 것은 분명함.
 - 그렇다고 대안교육이 비판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님.
- 부모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라는 것이 왜 하필 지금 가장 이전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강연의 목적임
- 정신분석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선사시대에 관심을 가짐
 - 인간의 삶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경험들의 시기를 역사시기로 규정한다면, 선사시대는 역사시기가 아닌 시기.
 - 삶에 대해서도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기억이 남아있는 시기가 역사시기. 보통 3-4세 정도가 기준점이 됨.
 - 1,2세 때의 것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경험한 것이긴 함. 그 이전의 경험들은 몸 속에 저장된다. 기억되지 않을 뿐임.
 - 저장된 경험들이 ET체제?를 통과하지 않고 발현되는 것이 무의식의 발로라고 봄
 - 비판도 많음.
 - 이 시기의 경험은 결핍이 있다면 보완되거나 왜곡된 것을 수정할 수 없냐는 관점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 교육 같은 것을 통해 왜곡이나 결핍의 경험을 수정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마음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마음의 훼손은 대체로 부모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한다.
 - 억지로 동화책을 읽게 한다던가..

-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던 실수들, 상담했던 청소년들의 부모들을 보면서, 정신분석 이론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훼손하지 않고 부모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수유의 중요성

- 수유라는 것은 영양학적인 것보다 아이들의 삶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신생아에게 수유는 무엇인가?

-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런 구조, 개념이 없는 상태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생존이다.
- 생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엄마의 젖을 먹는 거다.
- 엄마로부터의 수유는 영양학적인 문제가 아닌, 최초로 세상과 소통하는 "치명적인" 채널이 된다.
- 이것은 모유수유, 분유수유와 무관하다.
- 수유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1. 배고파할 때 주는 방식 (올때마다 주는 방식)
 - 아이가 감각을 느끼고 표현하고 반응을 한 뒤 피드백을 받는다는 장점
 2. 시간에 맞춰 주는 방식
 - 아이가 계획적이고 자기 삶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
- 위 두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주제다. 정답은 위 두 가지를 혼합하는 것이다.
- 갓 태어난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 혹은 일관성이다.
 - 예측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단어임.
 -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교가 이런 측면에서 마음의 평화를 줄 수도 있다.
 -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매우 불안해지게 된다.
 - 유럽에 여행가는 것보다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더 불안한 이유로 예를 들 수 있음
 - 아기의 생사여탈권은 완전히 주양육자에 있음: 젖을 물리지 않으면 아기는 죽음
- 신생아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느끼는 것은 불안이다.
 - 아기들이 잠을 잘 안자려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죽음과의 유사성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 수유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넘어서서 신뢰를 형성케 함

신뢰

-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다.
- 심지어는 내담자조차 상담자와 이야기하면서 불안해한다.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신뢰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만큼, 타인도 본인을 신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심한다.
-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나를 신뢰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 발달심리학에서 인간이 자신에 대해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가 태어나서 12개월이라고 함
 - 아이에게는 엄마, 세상, 자기 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가장 처음 주어지는 정서적 배이스가 신뢰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패턴이 신뢰할수 있는가? 예측 가능한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삶의 근본으로 작용하여, 모든 것의 신뢰의 기초가 된다.
- 우울증은 심리범주로 보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다.
 - 병리적인 우울장애의 근원은 12개월 이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견해임
- 일이 안될 때 떨쳐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인데, 이것은 자기 효능감, 즉 내가 저 사건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임. 이는 2차적인 자기감정.
- 따라서 12개월 이내에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일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신뢰 형성에 중요하다.
- 엄마가 맞벌이를 해서 도우미나 할머니가 봐줘서 일관성 있는 양육을 못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 그렇다 하더라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다.
 - 일관성 있는 양육은 아이에게 매우 필요한 것임.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가 부족했다고 평가한다면, 지금이라도 자녀와 과제 (프로젝트)를 정하자 (예: XXX하기, 100일간 YYY하기, 6개월에 한 번씩 XXX하기 등)
 - 가족의 관심, 종교에 따라 적당한 것.. (예: 매 며칠 언제 성경 구절 1페이지 읽기 등)
 - 본인은 내담자와 한 번 약속을 잡으면 아주 심각한 이유 아니면 그 시간으로 고정함. 그것도 일종의 일관성임.
 - 김구라씨를 만난 적 있음. 지난 10년동안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것이 20번 이내. 그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
 -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가 깨지는데, 거대한게 아니라 사소한 일관성 있었던 패턴이 깨지는 것으로 시작함.
 - 사소한 거라도 일관성을 만들자. 기분에 따라 원칙이 고무줄처럼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테레비 보기, 게임 하기를 허락하는 것 등) 이는 권할만한 것이 아님.
 - 현재의 삶이 일관성 없다면, 젓을 먹일 때도 일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본인은 "아이는 부모의 승상이나"라고 생각함.
 - 양상에 따라 엄마의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빠의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음
- 부모가 제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관성"
 -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일종의 "면역력"임.
 - 고통스럽거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극복하는 아이들에게는 심리적 면역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임.
 - 심리적 면역력의 측면에서 욕망은 바이러스 같은 것임.
- 한국이 요즘 수유를 점점 짧게 하는 경향이 있다.
 - 이유식을 빨리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WHO에서 권장하는 수유기간은 최소 12개월, 최장 36개월임.
- 아이들에게 수유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젖떼기때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잘 지내던 연인이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면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이도 매일 제공되던 젖이 갑자기 제공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이는 납득이 안되는 상실이다. 인간의 고통 중 하나임.
- 인간의 고통은 납득되지 않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음. 나에게 힘겨운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이해된다면, 내내 고통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아빠는 그때 나를 그렇게 대했지?" 같은 납득되지 않는질문은 내내 고통으로 남게 된다.
- 어린 아이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경험한다면, 이는 몸속에 저장된 고통으로 남게 된다.
- 수유는 가능한한 오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심지어는 기저귀 빨리 떼는 것이 머리 좋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것임.

인류는 모두 조산아였다.

- 포유류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수시간 내에 걷지 못하는 것은 인간 뿐임. 대부분의 포유류는 태어나서 수시간 내에 걸을 수 있다. 인간은 걷는 데에 1년 이상 걸림.
 - 그것이 생존에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임
 - 그런데 인간만이 태어나서 바로 걷지 못함.
 -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품고 있으려면 임신 기간이 22-23개월 정도였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현생 인류는 멸종했을 가능성이 높음. risk가 매우 높기 때문임
 - 만삭 상태에서는 위기 상황에 매우 취약함.
 - 그래서 인류는 진화론적인 결정을 한 것임: 조산을 하자.
-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일종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음.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시기까지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임.

포대기

- 포대기는 좋은거임. 아이들을 위해서.
- 포대기를 하는 것은 엄마의 체온, 냄새, 심장박동, 음성을 전달하는 것. 태내에서 아이들이 듣는 소리는 주파수가 진공청소기와 같다. 양수를 통과하면서 진공청소기처럼 변환되서 들어오는 것임. 그래서 진공청소기 틀어주면 잘 자는 것.
- 태내에서 하울링 없이 듣는 것은 엄마 목소리인데, 이것은 척추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임.
- 임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체온.
 - 엄마 체내 체온이 0.5도라도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코타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유입되는데, 이 것이 우울장애나 정서불안 등의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음
 - 따라서 임신 상태에서 싸우나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좋을 듯
 - 급격히 화를 내거나 감정변화를 겪는 것도 안 좋음

품어진 경험이 없는 아이들

- 독립심 기른다고 따로 재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 부정적 견해.
- 가급적 긴 시간 동안 품고 키우는 것을 권장함.
- 여러분은 아이들의 눈을 잘 쳐다보는가?
 -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색을 살피거나 눈치를 보는 것 말고
 - 여기에서 쳐다본다는 것은 관찰하는 눈빛이 아니라 (똑똑한가? 손재주가 있나?) 아이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 타인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내가 된다.

인간은 응시에 의해 조각된다

- 누구에게나 삶 속에서 최초의 인간이 존재한다: 엄마
- 아이들은 7-10개월 정도가 되면 최초의 목적적인 단어를 발화하게 된다. 의미없는 웅얼이 말고.
- 누군가를 지목해서 하는 최초의 단어는 "나"도 아니고 타인인 "엄마"다.
- 왜 최초로 발설하는 단어가 엄마일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by Martin Heidegger

- 아이를 보거나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누누히 얘기하는 것이, "너희의 언어를 가져라"다. 꿈을 가져라 이런건 별로 안중요함. 부모도 부모의 꿈을 모름.
- 직업도 안가져도 되나, 언어는 가져야 함. (그런데 자기의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직업과 꿈을 가진다는

것을 함축함)

- 언어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남들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
- 랑그. 어떤 사물들을 자기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랑스쪽 사상가들의 글은 정말 난해한데, 그들의 생소한 언어들이 본인을 계속 자극함.
- 아마도 인간의 고통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의사? 아버지? 고통을 많이 보고, 극복하는 것도 보았음. 하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유일한 얘기는 "삶에 무언가 의문이 들 때, 자신에게 물어라"라는 것이었음. 모르겠으면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물어보다가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메시지
- 부모의 언어를 아이가 그대로 물려받으면 아이는 부모의 욕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직업 선택 같은 것은 또 다른 문제
- 직업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갖게 되기 까지의 과정과 세상이 있는데, 왜 그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납득이 가장 중요함.
- 진로 적성검사는 사기임. 받지 마시라.
- 결핍의 보완을 위한 것이 직업이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성 없는 놈이 사회심리학 하고, 미친 놈이 정신 분석하고 ..
-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을 만들고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님. 언어가 단어가 내포하는 자기만의 세계나 개념이 있어야 언어가 만들어짐. 그런 맥락에서 본인은 학생들에게 시인이 될 것을 권유함. 아이들에게 시나 글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아이에게 "엄마"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개념은 무얼까? "세상"이라는 말과 등가임. 엄마 = 세상
- 엄마가 세상과 등가라고 할 때,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임.
- 2세나 3세가 된 아이들이 1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전에 "엄마"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최초의 언어가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임을 의미함.
- 당신들의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았던 눈빛을 기억해보라. 사실은 그것이 self image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 간혹 매우 매력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본인이 매우 못생겼다고 보는 경우가 있음.

아이를 바라보는 나를 먼저 바라보라

-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 없이 바라보는 그것.
- 6월, 7월 경에 발간했던 책이 "1000일간의 눈맞춤"이었다. 이는 최소 3년을 의미하는데, 3년까지는 주양육자 (꼭 엄마여야 할 것은 아니고, 할머니일 수도, 아버지일 수도 있음) 3년 정도까지, 변을 가리기 시작하는 향문기까지만 잘 하면 나머지 인생이 매우 좋을 수 있음.

요약

1. 수유: 일관되게 주면 된다.
2. 모든 인간은 조산이다. 최소 1년동안은
3. 인간은 응시에 의해 조각된다. 관찰 말고. (물론 관찰은 해야 하나 관찰을 위한 바라봄은 응시가 아님)

무기력이 지배한 청춘

- 상담사가 가장 바쁜 시기는 6월임.
 - 미국의 방학 시기임.
 - 유학간 아이들이 내담함.
- SAT 거의 만점 받는 아이들이 미국 대학을 갔더니 지금까지 했던 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했음
- 미국 교수들이 가지는 의문중 하나는 "토플 점수는 높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한다" "토론에 전혀 참여 안하는데 성적은 좋다" 등
- 공부하는 기계로 사육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한 아이들이 너무 많음.
- 무기력은 시대의 질병이라고 생각함.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 청소년들에게 무기력은 상담센터가 청소년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임. 청소년 상담이 매우 많고, 부모들 역시 아이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음
- 1980년대 후반에 교사로 있을 때 상담교사로 있었는데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의 가장 큰 주제는 폭력, 일탈같은 것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주제로는 상담하러 오지 않는다. 2/3 이상이 무기력 때문에 온다.
- 5년간 골방에 있던 아이가 있다. 이제 23세쯤 되었는데, 5년을 엄마아빠가 나가면 씻고 나와서 테레비 보고 하다가 엄마 아빠 가 오면 방에 쳐박혀 있다가 엄마 아빠가 자러 가면 화장실 가는 아이
 - 앞머리를 길러서 커튼처럼 가리고 있었음
 - 5년만에 나오기로 결정한 것은, 5년 정도 되자 "엄마가 진정으로 포기한 것" 같아 보여서였다고 함
 -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골방족 추산 50만 최소 30만
 - 니트족 (Not Employed A Training) 150-200만 정도로 추산 (노량진 수험생 포함)
- 고시생으로 6년간 있던 친구의 고백: 사실 이걸 알리바이였다. 이 고립된 생활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불합격해왔음. 왜?
 - 뭘 안하고 싶어서. 두려워서.
- 12개월쯤 되면 걷는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2-3세 아이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까꿍 하면 아이들은 가린 얼굴이 사라졌다고 생각함. 아이들이 깔깔거리는 이유는 얼굴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우 신기한 것임.
- 누운 아이들은 천정을 보아오다가 일어나면 시각의 차원이 달라지는데 이를 아이들은 환경이 바뀐 것으로 인지하게 됨
- 걷기 시작하여 이동성을 얻게 되면, 이는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됨. 이당시 아이들은 무엇이든 모두 입에

- 갓다대봄. 물체의 형태 질감 온도 경도 이런 것을 혀로 느낌. 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 이 시기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장 좋은 환경은 가능한한 싸돌아다니게 하는 것임. 가능한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것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함.
 - 너무나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토건국가라 주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이런 환경은 엄마가 아이들을 감시하기에 가장 적당한 환경임.
 - 심리학자의 관찰 결과 2-3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탐색에 대한 허용인데, 부모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금지어임.
 -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쓰는 말 2/3 가까이가 "하지마" "그만" 이런 것들임
 - 무언가 창의적인 것을 했더니 뒷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XXX나 해라"라는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과 같음
 - 이 아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통제하거나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 아이들이 부모의 기획 속에서 갖혀지면 아이들은 자신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엄마가 기획했고 지시했고 감독했고 평가했으니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대리자가 된 것임. 자기 삶이 없는 것임. 그런 아이들에게 열정이나 창조, 도전 같은 삶을 바라기는 어려운 것임.
 - 조심해야 할 점이, 청소년의 무기력은 공교육이나 대안교육이나 차이가 없다.
 - 대안교육이라는 교육 형태를 선택한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였다.
 -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기가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 아이들이 자기 삶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설령 대안교육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임.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 자기결정하기엔 너무 어린 것 아닌가?
 - 하자학교 교사시절 교사들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9/10은 엄마가 반대하는데 자식들이 뛰쳐 나오는 것이었는데, 이후에는 9/10이 엄마손 잡고 들어왔다는 이야기.
 - 공교육에서 경험과 대한교육에서의 경험은 매우 다름. 이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함. 부모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 부모들은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하는데, 가급적이면 부모의 고민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나누길 권한다. (징징거리진 말것)
 - 아빠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런이런 선택의 좋은점 나쁜점이 걱정이고..
 - 2-3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연에 풀어놓는 것임.
 - 자연 "체험", 자연 "학습"은 권장하지 않음. 경험이 중요함
 - 이게 잘 안된다면, 모든 놀이들이 권장되나, 게임 (이미 룰이 정해진 비디오게임류)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창의력을 자극하지 않음
 - 가장 좋은 놀이는 맨몸으로 하는 놀이다. 놀이의 실종은 아이들의 폭력성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
 -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살의를 느낄 때가 있는데, 대체로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 이를 위해 피우하 겨우 보이어 해도우 귀경전에 대해 이브전 제약보다는 내브전이 유

- 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윤리는 자기 내부의 평가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딴생각만 하는 것은 문제
- 아빠와 권투놀이를 한다고 하자. 이때 얼굴을 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공유하면 그것 자체가 훌륭한 경험이 된다.
- 요즘은 아빠가 아이들과 노는 것도 통제의 대상이 될 때가 있음.

엄마의 독재?

- 평가의 권한이 너무나 많이 엄마에게 가 있다.
- 집에서 아이와 노는 것도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엄마가 놀이의 종류도 정하고, 울어서도 안되고.. 같은 식의 지시 감독 통제 판단하게 되면 아빠도 재미 없고, 아이도 재미 없다.
- 애도 중요하지만 아빠도 중요하다.
- "친구같은 아버지는 없다"
 - 아버지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애들이 친구로써의 아버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 2-3세부터 영화비디오 보여주지 말고 동화책 읽어주기도 말고 (동화는 읽어주는게 아니라 들려주는 거다)
- 가장 좋은 방식은 동화를 숙지해서 들려주는 거다. 읽어주는게 아니다.
- 강의를 가장 못하게 되는 분위기는 기업 강의다. 간부 사모님들이 팔짱 끼고 듣고 있는 분위기.
- 세탁소에 비닐이 있는데, 그것을 둘둘 싸서 노란 테이프로 감으면 공이 되고, 신문지를 말면 배트가 된다. 그걸로 야구놀이하고 놀곤 했는데, 아이와 둘만 해서 하는 놀이가 재밌다. 그런걸 아빠들에게 시키면 의외로 잘한다.

똥과 나

- 똥을 선천적으로 잘 못누는 것이 애완견과 인간
- 똥을 볼 때마다 예비 지지 하면서 더럽다는 것을 인식함.
- 그러기 전에 아이들에게 똥은 신체의 일부이자, 최초의 창작물임.
- 왜 지금, 여기에 두지 않고 왜 마음대로 싹냐고 엄마가 화를 낼 때, 아이들은 그것을 나무람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나무람으로 느낌. 이는 자기 창작물에 대한 self image에 깊은 영향을 미침 --> 나는 그림을 못그리는 아이로 인식하는게 아니라, 본인을 형편없는 아이로 인식하게 된다
- 엄마의 표정, 말투, 눈빛, 목소리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냥 아는 것임.
- 남자애들에 비해 여자애들이 변hun련 시간이 짧다고 하는데, 여자애들의 body image가 남자애들보다 낮은 이유 (멀쩡한 몸매인데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등)
- 아이가 하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아이들의 행위를 행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행위가 가치 있는지 어는지 또또하지 머처하지 파다하느 거으 바라지하지 안

꼭든 갖기 어렵기까지, 꼭 갖지 못하기까지 쓰디쓴 배다른 누나같이 엉엉 울기까지 된다면 갖든 버림까지 낫음.

-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란 무엇인가?

- 본인의 아버지를 생각해보라. 실제 아버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와 일치하는가?
- 혹시 살다가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와 실제 아버지가 유리되었던 경험 있는가?
- 사실은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상은 엄마가 묘사한 아버지의 상에 가깝다.
- 안티부모카페도 있다.
 - 여기에서 하는 것은 부모 욕을 하는 카페다. 그냥 욕을 한다.
 - 가장 많이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찌질이"다.
 - 그 다음이 "개병신"이다.
 - 그 애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아버지가 찌질이고 개병신일 때가 아버지가 엄마에게 당하고 자신에게 화풀이할 때다.
 - 이것이 아이들이 아빠를 찌질이로 본걸까? 엄마가 아빠를 찌질이로 봤기 때문일까? 후자에 가까울 것이다.
- 아버지와 아이는 직접적인 관계로 맺어야 한다. 제3자의 평가나 선입견이 아닌 직접 판단이 필요하다.
- 어떤 사람의 wife가 자신의 아버지를 매우 무뚝뚝한 사람으로 평가했는데, 직접 만나보니 정 많은 사람이었다.
- 놀이 통제를 지나치게 심하게 하면 아빠가 자식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둘 이서만 자주 놀아야 하는데.
- 아버지와 자식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봄. 친구가 되면 아이들로부터 아버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임. 모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함.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아버지는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스승이다. 최소한 자식의 스승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부분 학교에게 빼앗겼다.
- 요즘은 소비와 생산이 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러니 영속적인 스승으로써의 아버지의 자리가 약해지고 있다.
-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학교에서 다 하니까 우린 안해도 되 같은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예전에는 엄마와 아버지가 온갖 지식들을 가르쳤다. 지금은 학교 커리큘럼은 현실적인 도움이 안된다. 가령, 악수하는 방법을 배운 적 있는가? 나는 아버지에게 배웠다. 악수할 때 힘을 충분히 주고 하는 것이 방법인데, 대부분의 악수는 손에 힘이 없다. 이는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 상가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에게 배웠

다.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관계맺는 방식, 수인사의 방식들을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제는 아버지조차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방기하는 것이다.

- 학교로부터 아이들을 찾아오라!
-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아이들이 좋은 학벌, 직장에 가면 한 숨은 돌리겠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요즘 세상은 삶의 연속성이 끊어진 세상 같다. 세대간에 이동이 안되는 거다.
 - 세대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편의점 알바는 지금은 5-60대들도 많이 한다.
 - 아파트 경비직은 이제 늙은 사람들이 주로 한다. 예전에는 30대 경비원도 많았다.

인간의 성장 동력, 열등감?

열등감의 반대말

- 학교 가면 시험도 치고 그런다.
- 열등감은 비교 때문에 발생한다고들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심리적 관점에서 할 얘기가 있다.
- 어떤 학자가 열등감의 반대말을 "근면성"으로 규정했다.
 - 보통은 자신감 같은 것을 떠올린다.
 - 심리학적 의미로 열등감의 반대말은 "근면성"
- 근면하다, 성실하다는 것은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 지칭하지 않고, 일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지칭한다.
- 여기에 열등감에 대한 단서가 있다.
 - 임무의 완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완수감"이다.
 -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 초4인 아이들에게 4학년부 터 수학이 어려워지니 중요하다고들 한다. 4학년 1학기때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58점 나왔다고 하자. 엄마 입장에서는 쇼크받을 일이다. 그래서 아이를 닥달해서 공부를 시켰다. 문제지도 시키고. 다음 쪽지 시험에서 78점을 받았다. 아이는 기분이 좋아서 78점을 받았다고 좋은 기분으로 들어왔는데, 엄마는 화를 낸다.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왜 안했어!". 그래서 다음 시험에 96점을 받았다 --> "왜 하나 틀렸어 아는 거잖아" --> 다음 시험에 100점 --> "이번 시험은 쉬웠나보지" --> 반에서 1등했다 --> "반 애들이 멍청한가보다" --> 전교1등했다 --> "고양에서 일등해봤자다."
 - 위 사례는 실제 상담사례다. 아이비 리그에서 좋은 성적으로 우수 대학 교수였으나 이 교수의 상담 이유는 열등감이었다.
- 사람이 근면 성실하다고 판단할 때의 기준은 완수감이다. 완수감이 없으면 완수감을 느낄때까지 일을 하게 된다.
- 엄마가 아이들을 칭찬하지 않는 것은 자만할까봐, 자만해서 공부 안할까봐 얘기를 안한다고 하는데, 사

실은 그것보다 큰 것은 엄마들의 경쟁심이다. 끝난 것이 아니고 완수되었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다. 일을 다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완수감을 느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 신뢰받는 상사가 되려면 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전에, 다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본인 아이가 문제지를 풀기 싫어하는 이유로, 10개 풀었는데 9개 틀리면 어떻게? 이런 식의 두려움이 있었음. 이에 10개 다 틀려도 중요한 것은 10개를 했다는 것에 있다고 하니 그 이후로 아이가 숙제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음.
- 부담감이 없다면 시험치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지 않을 것임. 행위의 결과로 평가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한 행위의 완수에 대해서 평가하라. "해냈구나!" 같은 식으로.
-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다. 심리학자로서, 본인은 인간이 자유로와질 수 있다는 것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욕망은 부모의 욕망이다. 부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그 욕망에 대해서 아이들과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말의 여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가 잘 안되는 것은 보통은 상대방이 자신을 못나게 볼까봐 솔직해지지 않고 에둘러 얘기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큰 대화의 장애물이다.
- 아이가 자기 인생의 협업자로서 (협력자로서) 부모를 여기게 된다면, 즉, 부모를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써의 인간으로써 관계를 맺는다면.. 즉, 아이가 저 사람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잘 아는 어른 정도라도 좋은 어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어른일까? 라는 질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마지막 몇 마디

-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더이상 묻지 말자.
 -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는데, 그건 사실은 꿈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다.
 - 이는 매우 교활하다. 기-승-전-공부 를 위한 포석
 - 만일 아이가 자기 꿈이 세계일주라고 한다면 --> 그래 좋구나, 근데 세계여행 잘 하려면 영어를 잘 해야 한다.. : 대한민국 부모들의 놀라운 재능: 모든 대화가 공부로 귀결
- 아이에게 선택을 시키지 말라.
 - 매우 폭력적일 때가 있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냐 같은 선택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깊이 고민하긴 한다.
 - 사실은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것은 매우 많다. 소비를 하는 문제에서의 선택은 사실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제약의 문제다. 돈이 많으면 더 좋은 거 사는 것이 정답일테니.
 -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선택을 맡기는 행위는 그것이 아이에게 매우 폭력적일 수 있다는 얘기. 물론 선택의 여지를 주고 책임지게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의도이긴 하나, 그러려면 어른이 충분한 정보와 타당성을 판단하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책임지는 거라면 모르겠으나, 아이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위임하는 것은 사실은 부담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니 선택이니 이 결과는 니가 책임질이라는 것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드려는 욕구의 발현이다.

부모가 책임지기 싫나쁜 태도의 말연설 뿐임.

-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방향을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올 수 있는데, 이걸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주된 느낌들이기도 함.
- 아이들이 협력자, 지지자, 자원으로 느끼게 만들고, 선택을 강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 모든 방해물을 치워주려는 부모가 되지 말자
 - 컬링하듯 부모가 애들 앞의 방해물들을 치워주려는 태도가 있다.
 - 요즘 문제 중 하나가 애들의 좌절을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왜 애들의 좌절을 부모가 걱정 하나? 애들이 감당할 일이다.
 - 아이들의 감정까지도 선행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자녀의 성장을 위해 부모는 자신의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
 - 정말 중요한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욕망 말고.
 - 내가 3-50년 살아오면서 삶의 과정을 헤아려보라. 헤아린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들을 들추어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듬는 일이다. 내 삶의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고난과 좌절을 극복했는지, 무엇이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그랬는지를 검토하고 고민해보면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모가 아닌, 개인이어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강의 끝